

휴일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지구 가보니

1.5km 차량 뒤엉켜 곳곳 실랑이 ‘짜증길’

관광버스 전국에서 몰려들며 극심한 정체 ‘몸살’
안내 요원도 없어...“국립공원이 왜 이래” 분통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지구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의 갓길은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주차돼 북새통을 이뤘다.

이 주차 행렬은 원효사지구 시내버스 정류소·회차지(1187번 종점)까지 1.5km구간에 걸쳐 장사진을 이뤘다. 이 일대 도로에는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들로 도로 폭(6m→3m)이 비좁아져 있었다. 가뜰이나 비좁아진 도로에 원효사로 들어서는 차들과 내려오는 수 십여대의 차들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상·하행선 차들에 막혀 움직일썩 못하게 된 운전자들 사이에선 “내가 먼저 양보해라”, “몰려설 공간이 없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면 되지 않느냐”라는 등 고성 이 오갔다. 운전자들간 주차 및 통행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는데도, 주차단속 및 안내를 하는 경찰·구청·무등산국립공원 직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점다 못한 일부 등산객들은 관광버스에서 내린 뒤 짝 막힌 도로 위 차들을 피해 이리저리 오가며 등산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1.5km에 불과한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1시간. 힘겹게 원효사 앞 사설주차장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운전자들은 자신이 몰고 온 차들을 다시 돌려야만 했다. 지난 2013년 3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탐방객 수가 예전보다 30~40% 이상 늘면서 사설 주차장은 이미 만차(주차면수 230면)된 상태였기 때문. 주말·휴일 평균 500~700대의 관광버스 등이 원효사지구를 찾는다는데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주차대수는 230대인 반면 원효사지구를 찾는 관광버스 등은 주말·휴일 평균 최대 700대인 점을 감안하면 원효사지구 진입구간 불법주차는 당연한 결과다.

서울·충남·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등산객들은 “국립공원이 맞느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등 한마디씩 내뱉었다. 외지인들에게 광주의 명산인 무등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경남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지구를 예로 든 뒤 “무등산 국립공원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금산 진입로 앞엔 대략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진입로에서 1.5km 떨어진 등산로 앞엔 30여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은 진입로에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뒤 등산로 앞 주차장에서 내려온 차량의 수 만큼 차량을 돌려보내고 있다.

다만 금산 진입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탐방객은 진입로와 등산로 입구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통행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주말·휴일만이라도 총장사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금산지구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승격 이후 원효사 주차장 소유주인 사찰로부터 주차장을 임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며 “복구정,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 가는 길 주차전쟁

휴일인 18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지구 입구에서 1km 떨어진 도로에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전·현군수 부부 10년 악연 부정선거 불명에 남기고 ‘종지부’

유두석 군수 당선 무효형

유두석(65) 장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에 이어 김양수(65) 전 장성군수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10년 부정부정에 연루되는 ‘오명’(汚名)을 쓰게 된다. 장성은 ‘민선 군수의 무덤’이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항우 모임에서 노인들에게 식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군수의 경우 과거 군수로 당선돼 한차례 낙마했고, 이 전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와 벌금 90만원을 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당분간 이들 부부가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

지도 엿보인다.

김 전 군수도 앞서 군민에게 욕설하고 고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욕설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군수 아내도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전·현직 장성군수 부부 4명 모두가 부정부정에 연루됐다는 불명예를 쓰게 된 셈이다.

유 군수와 김 전 군수 사이엔 오래되고 골곡진 ‘악연’(惡緣)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선된 유두석 군수가 이듬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부인인 이청 후보는 김양수 후보를 물리쳤다. 이청 전 군수는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 김양수 후보에게 저 군수직을 내놓았고, 김양수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 전 군수의 남편인 유두석 후보에게 졌다.

유 군수를 지난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당시 수사 검사는 현재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유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종결 지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산 철도부품 수입품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국산 부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한 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하모(6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박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사 직원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반복됐고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허

위 증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납품한 부품들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품질에는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이고 철도공사가 현재까지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하씨는 2006년 12월 26일께부터 2012년 2월 28일께까지 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으로 역수출해 철도공사에 모두 24억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 무장 탈영병 사흘째 행방 오리무중

소총 1정·공포탄 10발 소지
군 병력 2500명 투입 수색

육군 일병이 총기와 공포탄을 갖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특히 군 당국은 인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해당 군인의 소재 파악은 커녕 탈영 여부와 원인 등에 대해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육군 제 31보병사단에 따르면 9연대 소속 이모(21) 일병이 지난 16일 오전 6

시30분께 목포시 북항동 서해어업관리단 인근 근무지에서 K2 소총 1정과 공포탄 10발을 갖고 무단이탈,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일병은 근무 종료 30분 전인 6시께 “몸이 안 좋다”며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컨테이너로 이동한 뒤 행적을 감췄고 군은 2시간 가량 이 일병을 찾다가 오전 8

시30분께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협조 요청을 했다.

군 당국은 지원병력 포함 2500여 명을 투입해 북항 일대와 목포역, 고속도로 진입로 등 검문검색을 벌이는 한편, 인근 야산과 공·폐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이 일병 근무지 인근 42개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지만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

결혼 미끼 남성 4명에 수천만원 등친 여성 ‘쇠고랑’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쇠고랑.

○...1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0)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36)씨에게 가족 병원비 등 도움을 요청하며 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A씨와 사귀는 와중에도 3명의 남성과 교제하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것.

○...김씨는 이미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경남 거제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 피해 남성들은 “(김씨와)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상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다며 적극적인 애정공세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허탈.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보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천파크 빌라 34평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304호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시세 및 감정이 - 1억 9천만원
매매 - 1억 6000만원

빌라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H. 010-3605-5000

■ 다음 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301호
4층 중 3층, 정남향, 즉시 입주가능
현재 전세 4500만원에 임대 중
매매 - 6500만원